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16년

HAPPY NEW YEAR! 2016



Photo: KHL

한인회소식

Abiquiu Lake and Pedernal (O'Keefe's Mountain) viewed from Ghost Ranch.

새해인사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
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5년 한 해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 놓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따르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진심으로 보살피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2015년, 지난 한 해, 한인회에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사업체들 감사합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인회는 2016년도에도 새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인들을
위해 힘쓰며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이루어 부푼 가슴으로 마추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인회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HAPPY NEW YEAR!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멕시코 한인회장 김영신 ■

HAPPY
NEW YEAR
2016!

2016년 1/2월호 내용

- 한인회소식 | 새해인사 | 김영신 : 1
- 한인회소식 | 대보름잔치/한국학교 광고 : 2
- 한국학교소식 |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 김레베카 : 3
- 한국학교 소식 | 성인초급교재개발 : 4
- 새해인사 | KOWIN | 정풍자 : 4
- 새해인사 | 교역자협의회 | 윤성열 : 5
- 교역자 근황 | 유용호목사의 봉사활동 : 5
- 지역사회소식 | 원자력 협력 포럼 개최 : 6
- 지역사회소식 | 고 정경숙 여사 소천 : 6
- 뉴멕시코 관광 | 관광홍보에 어도비 건축미 소개 : 7
- 수필 | 돼지-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 | 이정길 : 9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6) : 10
- 미술시리즈 | 앙리마티스의 생애와 작품활동 | 심유진 : 13
- 칼럼 | Merry Xmas & Happy New Year | 김기천 : 14
- 기도문 | 2016년에 드리는 기도 | 오영 : 15
- 교계소식 | 탄자니아 이성구 선교사 : 15
- 간증문 | 첫 사랑의 하나님 | 최미나 : 16
- 수필 |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 이경화 : 17
- 광고 | 뉴멕시코 한인교회안내 : 19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20

한인회소식



초대합니다 !

뉴 멕시코 한인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만사가 뜻대로 되고, 풍요로운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보를 전지를 열게 됩니다. 많은 분을 참석하셔서 우리 전통의 가문과 풍성한 대보를 발상을 받아 보세요. 푸짐한 상품과 함께 가라오케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일시: 02-20-2016, 토요일, 오후 3시**

****장소: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전화: 505-271-1777 or 321-7695**



뉴멕시코주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www.kaanm.com

김치페스티벌 수입 보고서
Kimchi Festival Income Statement
11-07-2015

수입

후원금	\$3,450.00
음식판매	\$4,730.00
총수입	\$8,180.00

지출

김치재료	\$749.50
불고기	717.00
물품(non food items)	160.70
테트 란트 & Permit	438.00
손님접대(호텔, 식사)	320.45
브로셔/전단지 및 복사	147.92
총지출	\$2,533.57

순수입

\$5,646.43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6 년도 봄 학기 학생모집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은 자질과 소명감을 고루 갖춘 교사진들을 모시고
2016 년도 봄 학기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개강날짜: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5- 7

2016 년 1월 30일 (토) 오전 9:15- 오후 12:05

대상: 유치원 - 12학년, 성인반

과목: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 (한국 문화/역사, 미술, 동요, 고전, 태권도)

등록처 : 한국학교 사무실

문의: 김레베카 교장 (505) 331- 9660, NMKoreanlanguage@gmail.com

수업료: 학기 150불 (목요일 또는 토요일 수업을 선택할수 있음)

2016 Spring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nvites you to the 2016 Spring school year with highly motivated and qualified teachers.

First Day: Jan. 28 (Thurs) 2016, at 5:00pm thru 7:00pm

Jan. 30 (Sat.) 2016, at 9:15am thru 12:05pm

Enrolling: K - 12th grade, Adults

Subjects: Korean-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cial courses- Korean History & Culture, Art, Music, TaeKwonDo

Register: NM Korean Language School

Contact: Rebecca Kim, Principal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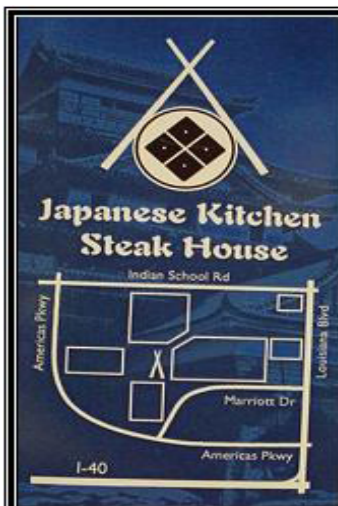
(505) 331- 9660, NMKoreanlanguage@gmail.com

Tuition: \$150 (You choose once a week either on Thursdays or Saturdays - Please indicate preference during registration)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www.kaanm.com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김레베카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사 연수가 11월 14일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교사 연수에 한인회의 협조로 두분의 강사님과 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연수를 가질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사무라이’ (Eubank/Mongomery) 에서 한국학교를 위하여 대접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한국학교가 한인 공동체와 더불어 가는 ‘뉴멕시코 한국학교’ 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LA 에서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주최로 12월 10일에 교장 총회가 있었고, 뉴멕시코 한국학교 김 레베카 교장이 ‘교사 근속 15년 공로패’ 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베카 드림. ■



〈베델한국학교 인현미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재미있고 효율적인 초급만 한국어 수업’ 이라는 제목으로 뉴멕시코 교사들이 강의 받음〉



〈두번째줄 왼쪽 부터: 박보석 (유아 1반), 김태운 (금: 성인 2반, 토: 초급 2반), 박영신 (유치반), 이미영 (성인 1반) 앞줄 왼쪽부터: 이유경 강사, 신경숙-가주 한국학교 연합회 회장, 김 레베카 (교장, 목: 성인 2 반), 인현미 강사, 정지에 (목: 성인 1반, 토: 초급 1반)〉



〈이유경 강사- 남가주어바인 한국학교- 로 부터 ‘시청각 교재 및 craft 를 통한 신나고 재미있는 한국어’ 강의를 받음.〉



〈한국학교 교사 연수를 마치고〉

〈사진 아래: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교장 총회를 마치고〉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 성인 초급 교재개발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 교재개발팀은 2015년도 주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영어권 성인 및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사용 교재를 개발했다. '맞춤형 지원 사업'은 정부가 미주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LA지역 300여 개 한국학교 중 특화로 개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2014년 12월에 지원금 신청을 했고 심사 후 2015년 6월 선정된 학교가 지원금으로 각 학교의 특화를 개발했다.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에 6천 불을 포함한 13개 학교에 총예산 2만 7천 5백불이 지원됐다. 뉴멕시코통합한국학교는 1,500 불을 지원받아 4개월간 교재 연구 작업 끝에 한 권의 교재를 완성했다. 교재개발을 특화로 정한 이유는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제한된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를 습득하는 재외동포 학생이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 입양 학생,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등 지적으로 성숙한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를 충족시킬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담긴 교재 개발이 절실했다. 현재 나온 교재는 아동용으로는 다양하게 개발이 됐으나 성인용 교재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 교과서와 함께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만의 노하우가 담긴 수업자료를 개발해서 사용해 오다가 이번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기로 그간의 자료를 재정비하여 한권의 책으로 묶게 되었다.

본 교재는 '안녕하세요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총 10과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 깨치기부터 시작해 동사 활용까지 한국어 문장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문법 이론, 회화, 교구, 액티비티, 숙제까지 실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렸다. 그 외에도 바른 발음,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SNU LEI 한글,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부산대학교: 한국어 맞춤법 문법검사기, 로마자 변환기, 표준 발음 변환기, 외래어 한글표기 상호 변환기) 등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소개했다. 보조 자료로 한국어에 관한 소개 PPT와 일상 회화에 관련한 PPT 파일을 첨부했다.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학생들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이나 핵심 내용에 20개의 팁(Tip)을 달아 그간 잘못 알고 가르쳤거나 무심코 넘어갔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다. 한국학교 정지에 교사 외 이은주, 신미경, 이다나 네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원금이 크지는 않았지만,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즐겁게 작업했다고 한다. 정부의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고 이 교재가 우리 학교의 자산은 물론 전세계 한국학교가 사용할 수 있기에 결과물의 값어치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재는 스터디 코리아 웹사이트(<http://study.korean.net/커뮤니티/Now> 한글학교)에 올려져 있다. ■

KOWIN지회장

신년사



정풍자

코윈 뉴멕시코지회 회장

제가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New Mexico 지회장 으로 보낸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KOWIN은 한국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지만 세계각국에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잘 살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특히 한민족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뉴멕시코지역사회에서 차세대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과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취지로 코윈 뉴멕시코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설립된 여성단체에 저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해주시고 여러모로 저와 코윈단체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뉴멕시코 지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나름대로 차세대 양성, 지역 봉사, fund raising 등 저희 Kowin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추석을 맞아 어린 세대에게 한국문화에 대해 송편 빚는 것과 한국명절에 대해 가르쳤던 일, 안선생님(Rick T. An) 모시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기능과 기본적인 IT정보를 배워본 지역사회정보세미나, 이정길 교수님을 모시고 여성 Leadership 에 대한 교육세미나, 추운 1 월달에 모여서 불우이웃을 위한 김치바자회를 했던 것,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of the Southwest에서 타주에서 온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한국음식을 대접하는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새로 생긴 단체이라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에 좀더 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때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컴퓨터 workshop 할때 자리를 제공 하신 감리 교회에 감사 드리고, 여성 Leadership 세미나할때 Bear Canyon Senior Center 를 주선 해주신 이정길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59 명이 되는 많은 김치를 만들수 있게 집과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윤태자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누구보다도 KOWIN을 위해 적은 숫자지만 너무나 열심히 해주신 저희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더구나 힘들게 번 돈을 Homeless여성과 아이들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인 Crossroads for Women과 가정폭력피해여성고 그자녀들을 돕는 단체인 The Nest Domestic Violence Shelter 을 통해 지역사회에 피해입고 소외당한 여성들에게 여성단체인 Kowin에서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다는게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5 페이지로 계속>

교역자협의회 회장

신년사

윤성열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목사



존경하는 뉴멕시코 지역 동포 여러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 해를 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우주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꿈을 안고 이곳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요한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자로서 내 조국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저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의 삶이고 광야를 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이 뉴멕시코 광야에 살아가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직장,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들을 미래의 훌륭한 인물로 키워 나가시며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를 치하드립니다.

2016년 한해 동포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되고 희망이 되시고 참다운 건강과 부요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셔서 동포 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또한 큰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존귀한 뉴멕시코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윤성열 목사

(뉴멕시코한인교역자협의회 회장,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 ■

<KOWIN 지회장 신년사 계속>

Kowin 에 간사이신 박광종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옆에서 오른팔 같이 여러 모로 도와 주셨고 아끼까지 낳으시면서도 열심히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저의 임기도 올해로서 끝나고 지난 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박광종 박사가 다음 New Mexico 지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Kowin 이 좀더 큰 일을 할수 있는 단체로 이끌어 나갈수 있고 좀더 지역 사회에 많은 봉사과 차세대 양성 그보다 더 한국을 좋은 Image로 알릴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2016년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평화로운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

유 용호 목사의 봉사활동



앨버커키 갈보리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1997년 5월 부터 2000년 10월 까지 계셨던 유용호목사님의 근황이 신문 기사로 알려졌다. 지난 12월9일자 Korean Daily 의 일간플러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유용호 목사님은 한미기독교봉사회 대표 디렉터로 3년전 목회 활동에서 은퇴한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뛰어들어 한인들의 크레딧 교정과 이민국 및 법원서류를 대행해주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크레딧 교정에 관련된 봉사를 보면 집이나 차 용자금을 은행에 채 불해 명의가 바뀐 경우 회복을 도와주며 파산기록, 차압기록등을 말소시켜 주는일, 스튜던트 론, 세금 미납 문제등 도 해결해 주는 일을 해 준다고 한다. 법원서류 업무에 있어서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부모형제초청, 입양등의 이민국 업무와 신분 변경, 민사소송, 이혼소송, 범죄기록 말소 같은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고 계시다.

광야의 소리 편집부에서는 관련 정보를 얻고져 E-mail로 연락을 취했는데 유목사님께서는 E-mail에서 앨버커키에 계실때 시작했던 Prison Ministry 사역을 언급 하시면서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던 갈릴리 장로교회와 알버커키 여러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전해 오셨다. 그때 당시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한인 입양아 산 이군(1998년 당시의 나이 20)의 구명운동에 적극 활동을 유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지금은 산 형제가 출옥하여 결혼해서 라스 베가스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 주셨다. 12년간 해온 Prison Ministry 도 잘 마무리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앨버커키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길 기도 드린다고 전하셨다.

한인기독교봉사회 문의는 (213)343-7849/(792)222-0691이며 주소는 2140 W. Olympic Blvd. #537, L.A. CA90006.(글: 편집부)■



A-1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 -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입니다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지역사회 소식

한미 원자력협력 포럼 앨버커키에서 개최

지난 11월 25일 42년 만에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된 가운데, 한미 양국의 정관계, 원자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 및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행사가 12월 14일 저녁 6시부터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모여 있는 뉴멕시코 앨버커키 국립 핵과학 및 역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uclear Science & History)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측에서 뉴멕시코의 현역 하원 의원인 스티브 피어스(Steve Pearce), 리 테리(Lee Terry) 전 하원의원(네브래스카), 수잔 피커링(Susan Pickering) 샌디아국립연구소 본부장과 한국 측에서 이승구 전 과학기술부 차관, 신동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학호 한국 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 등 양국의 정관계 인사와 연구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현지 교민 등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조발표를 통해 양국 원자력 협력의 역사 및 미래 비전과, 기술전시회를 함께 개최하여 그동안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스티브 피어스 하원의원 및 신동의 외교부 조정관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 발표로 ‘핵연료 주기 연구의 개요와 전망’(수잔 피커링, 샌디아국립연구소 본부장), ‘한미 원자력협력의 미래 방향’(이승구 전 과기부 차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포럼 현장에서는 한국의 최신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원자력 기술전시회가 병행 개최되었다.

다음날인 12월 15일에는 실질적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산업 및 연구개발 협력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미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되었다. 이 포럼을 주최한 글로벌 전략경영원 노명화 대표는 “원자력관련 포럼을 역사적인 원자력 박물관에서 양국의 많은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진행할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포럼 장소를 많은 도시 중 앨버커키로 정한 이유는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중심지인 샌디아 연구소와 로스 알라모스 등이 있는 원자력 관련 유수의 도시라는 점입니다. 함께 해 주신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포럼 관련으로 이곳을 방문한 여러분들이 이곳 뉴멕시코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안내해 주신 소피아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새 원자력협력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42년 만에 개정된 새 협정은 두 나라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 등을 담은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새 협정은 한국 측이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을 ‘장기 동의’에 합의해 핵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서 한국 측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이은주 기자) ■



〈사진은 좌측부터 과학과 조선헌 주미대사관, KAIST원자력관련 임만성 학장,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신동의 차관보, 전 미래창조부 이승구 차관, 글로벌전략경영원 노명화 대표, 한국 원자력 연구원 김학호 부원장, 한미경제연구소Mark Tokola 부소장〉



〈주최측 인사, 노명화 대표와 레베카김, 수 톨슨, 윤성열 목사〉

고 정경숙 여사 소천

1월 2일 오전 11시에 고 정경숙 여사의 천국환송예배가 한인회관에서 있었다. 고 정경숙 여사는 12월 29일 향년 80세로 Canyon Transitional Rehab Center에서 오후 1시 20분에 지병으로 소천했다. 장례예배는 침례교회 윤성열 목사가 집례했다. 미국에 온지 15년이 되는 고인은 뉴욕의 조카딸 이현숙 씨외에는 미국에 가족이 없어서 한인회 장으로 치루 한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침례교회 윤성열 목사는 설교를 통해 '고 정경숙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었지만, 정경숙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셨다.'고 설교했다. 이어 뉴욕에서 온 조카딸인 이현숙 씨는 “살아생전에 얼굴 한 번 더 뵙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앨버커키의 한인들의 섬김의 손길을 이모를 통해서 늘 전해 들어 왔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방문객을 위해 아버지회 윤태자 회장을 비롯한 여러 한인이 준비해 온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다. 한인회 장례식을 주관한 김영신 회장은 참석한 모든 한인에게 감사하고 그동안 정경숙 어머니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글: 이은주) ■



〈고 정경숙 여사〉



〈윤성열 목사와 이사장의 부군인 Evan Beenhouwer 씨. 조가로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을 첼로로 연주했다.〉



〈사진: 우측부터 조카딸인 이현숙 씨와 이덕녀 권사〉

뉴멕시코 관광홍보에 어도비 건축미를 소개

진흙에 건초를 섞고 물반죽을 해서 만든 흙벽돌을 어도비(adobe)라고 한다. 이 흙벽돌로 지은 인디언 고유의 어도비 건축 양식은 뉴멕시코주의 인디언 문화의 상징으로 볼수도 있는 특유의 관광 자산이기도 하다. 뉴멕시코 관광부(New Mexico Tourism Department)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뉴멕시코 투루스토리(New Mexico True Story)란 비디오 트레일러(Trailer: 영화 예고편 같은 짧은 소개의 비디오)를 시리즈로 여러개 제작해 왔는데 이 시리즈의 9번째로 “치유된 흙”(Cured Earth)이란 제목으로 어도비 건축물들을 주제로 하여 1분46초 길이의 비디오 트레일을 제작해서 뉴멕시코 관광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렸다. 비디오가 얘기해주는것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흙 또는 진흙이지만 사람의 손을 거쳐 어도비로 변신 되었을때 신비로운 건축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비디오는 한 카우보이의 아래와 같은 얘기로 시작된다. “당신은 대화하든 중 ‘dumb as mud?’이란 표현을 들어 보신 일이 있겠지요. 뉴멕시코 사람들은 사실 그리 생각을 안합니다.” (편집자 주: ‘dumb as mud’는 직역하면 ‘진흙 같은 멍청함’으로 진흙을 별볼일 없는 가치없는 것으로 나추어 보는데서 기인한 관용어이다. 진흙(mud)이란 단어가 뒤 집어져서 ‘dumb’란 단어 안에 숨겨져 있음이 재미있다.) 산타페 거주하는 토마스 원게이트가 카우보이 역을 맡아 낭독하는 트레일러의 얘기는

마치 시를 읊는듯 이어진다. “수세기가 지나는 오랫동안 우리는 진흙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진흙과 물이 섞힌후 인간의 손을 거쳐 변화된 모습은 단순하면서도 마술적인 영광스런 모습이 됩니다.”

뉴멕시코 관광부에서는 이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올림과 동시에



ADOBE TRAIL

RANCHOS DE TAOS

1. San Francisco de Asis Mission

CHIMAYO

2. El Santuario de Chimayo

SANTA FE

3. The Oldest House
4. Palace of the Governors

TAOS PUEBLO

5. Taos Pueblo

TAOS

6. Kit Carlson Home

SOCORRO

7. Old San Miguel Mission

ACOMA PUEBLO

8. The Mission San Esteban del Rey

MESILLA

9. Double Eagle Restaurant

ALBUQUERQUE

10. San Felipe de Neri

ABIQUIU

11. Christ in the Desert Monastery

TRAMPAS

12. San Jose de Gracia Church

BANDELIER NATIONAL MON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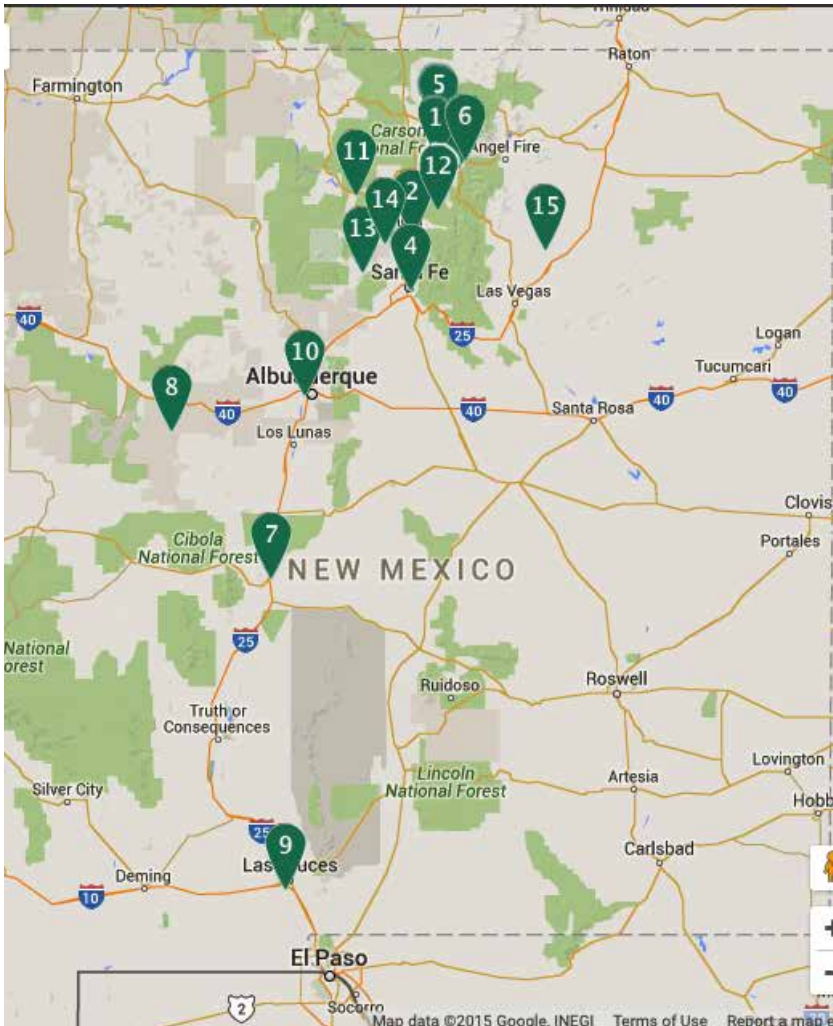
13. Bandelier National Monument

ESPANOLA

14. Puye Cliffs

FORT UNION NATIONAL MONUMENT

15. Fort Union National Monument



뉴멕시코의 대표적인 어도비 건물 15개를 선정해서 여행자가 찾아가기 편리하도록 안내 지도를 만들어 발표했다. 관광부 당국자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 테마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어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3개의 테마여행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안내지도를 만들어 소개해 왔다고 했다.

어도비 건물을 테마로 하여 여행하는 이들을 위해 선정한 어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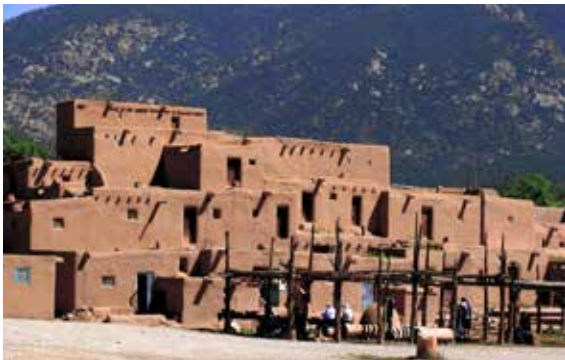
건물을 보면 알버커키 올드타운 플라자에 있는 산 펠리페 데 네리교회, 타오스에 있는 푸에블로와 산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미션 교회, 치마요에 있는 교회, 아코마 푸에블로에 있는 교회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야의 소리 편집부에서는 15개의 선정된 어도비 건물중 8개의 건물 사진을 아래에 소개한다. 보다더 상세한 내용은 newmexico.org/adobe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뉴멕시코 관광부에서 올린 비디오 트레일러는 www.youtube.com/user/VisitNewMexico 에서 볼수있다. ■



1. San Francisco de Asis Mission



11. Christ in the Desert Monastery



5. Taos Pueblo



12. San Jose de Gracia Church



2. El Santuario de Chimayo



7. Old San Miguel Mission



14. Puye Cliffs



10. San Felipe de Neri

돼지 -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구대륙의 멧돼지가 약 2,000년 전부터 집짐승으로 길러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돼지다. 몸이 비대하여 동작이 느리고, 다리와 꼬리는 짧으며, 주둥이는 뾰족하다. 성장속도가 빠른데다가 고기 맛이 좋아 전세계 식육생산량의 40퍼센트가 돼지고기다. 한국사람이 아주 좋아하여, 한국에서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쇠고기 소비량의 배가 넘는다. 햄이나 베이컨은 세계적인 주식이 되었다.

어렸을 적, 나는 돼지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번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버지는 반드시 머슴을 시켜 산에서 황토를 저다가 돼지우리 주위에 흙무더기 몇 개를 만들어 놓게 했고, 손수 금줄을 만들어 대문에 쳐 두었다. 그 두 가지 일은 경험에서 나온 아주 과학적인 조치였다. 금줄은 낯선 사람이 들어와 출산으로 예민해진 어미돼지를 놀라게 하거나 새끼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아주고, 황토는 하루가 달리 커가는 새끼들에게 성장에 절대 필요한 철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돼지는 우리민족의 의식 속에 다산의 상징이나 재물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희생물로서, 신 앞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믿었으며, 그 풍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하면 사람들은 곧 지저분하고 미련하며 욕심 많은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동물을 두고 이처럼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또 있단가. 알고보면 모두 불필요한 선입관이다.

돼지는 먼저 지저분한 동물이 아니다. 사는 공간만 넓으면 자는 자리, 배설하는 자리를 반드시 구별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미련한 짐승도 아니다.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지각능력이 개만큼 발달한다. 개보다 훨씬 더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송로 버섯을 찾는 데 돼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욕심 많은 동물도 아니다. 여럿이 한 우리에서 사는 바람에 경쟁심이 생겨 먹이를 보면 허겁지겁 달려드는 것일 뿐,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더는 먹지 않는다.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돼지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다. 사람 다음으로 위궤양의 발생률이 높다. 최근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돼지의 수정란이나 정자에 사람의 유전자를 넣는 방법으로 장기이식용 돼지를 생산하는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사람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하는 모델로도 사용되며, 새로 개발되는 대부분의 약품은 돼지에서 시험을 거쳐야만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된다.

돼지는 잡식성이어서 풀이 많이 들어가는 사료로도 사육할 수 있다. 멧돼지는 나뭇잎, 잡풀, 뿌리, 열매, 꽃 등을 먹는다. 양돈장의 돼지는 옥수수나 콩으로 만든 사료에 비타민과

광물질을 섞어 먹인다. 전세계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수는 어느 때나 약 10억 마리로 추정된다. 그 중 5억 마리가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양자강 하류에 있는 태호 주변에서는 옛날부터 태호돼지라는 특유한 품종의 돼지가 사육되었다. 검은 색깔에다 체구가 큰 품종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많다. 섬유질이 많은 거친 사료를 먹여도 잘 발육하며, 질병에 강하고, 한 번에 평균 16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져다가 품종개량이나 유전공학의 연구재료로 사용한다.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에게 쪼뜨물에 밀거나 보릿겨를 타 주면서, 음식쓰레기를 먹여 길렀다. 군부대에서 먹고 남은 음식으로 기른다. 자원의 재활용에 보탬이 되면서 식육 생산 이외에 여러 가지 부산물도 가져다 주는 것이 돼지다. 돼지고기는 사람의 몸에서 독물질을 제거해준다. 비계로는 비누를, 털로는 솔을, 껍질로는 가죽을 만든다. 병천 순대는 기호품이고, 족발은 젓이 부족한 산모에게 고아 먹이는 약으로 쓰이기도 한다. 멧돼지는 사냥감이지만, 배불뚝이 월남돼지는 유순하고 조용하며 영리하고 사람의 말을 꽤 많이 알아들어서 애완 동물이다. 주인과 함께 산책도 하고, 등을 긁어주면 발랑 누워 공처럼 구른다. 북미주에서는 한 마리에 수천 달러를 호가한다.

돼지띠의 사람은 순진하며 열정적이고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불임성 좋고, 성별 잘 모르며, 근심 걱정 없는 낙천적인 성격이다. 지나치게 사람이 좋고 정직하여 손해 보는 일도 흔하나, 재물 복이 많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목표를 세우면 위험하더라도 도전하는 추진력을 발휘한다. 반면 순진하고 고집이 세다. 항상 무방비 상태여서 잘 속는다. 충동적이며 유혹에 약하고, 뻔뻔하다는 평을 받는다.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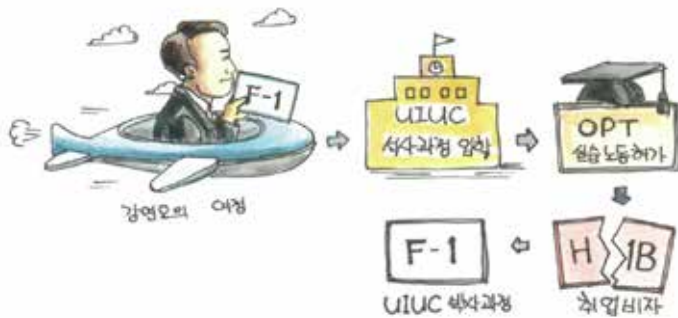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된 돼지는 품종도 여러 가지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진화하여 긴 수염을 가진 멧돼지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는 얼굴에 사마귀처럼 생긴 혹을 단 혹돼지도 있다. 미국에는 유럽에서 수입하여 기르던 돼지가 우리를 탈출하여 야생을 되찾은 뒤 번식한, 수백 만 마리의 야생돼지도 있다. 번식력이 엄청난 녀석들은 텍사스 주에 가장 많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메인 주까지 미국 전역에 서식하면서 매년 약 8백 만 불에 상당하는 재물의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멧돼지가 가끔씩 시가지에 나타나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며, 농작물을 해치거나 묘를 파헤친다.

남 앞에서 자기의 아들을 낳추어 부를 때 돈아豚兒라고 한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저돌猪突이다. 요동시遼東豕는 건문이 좁아 세상 일을 모르고 저 혼자 득의양양하는 것을 비유하거나, 식견이 좁아 제가 잘난 체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별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이때의 돈, 저, 시는 모두 돼지를 뜻하는 한자다. 무슨 일이든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고, 남 앞에서 돼지 먹따는 소리를 지르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부)

1-13 강연오의 취업비자 (H1-B, 학위 취득자의 비자취득)



“이제 연오 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미국나와서 나이 먹어 공부하느라 그것도 고생째나 했겠는데, 삼페인은 또 좀 심심하냐, 사방이 옥수수하고 콩밭에 전후좌후로 산하나 없는데 말이지.”

강연오는 명문공대를 졸업한뒤 선망의 직장인 대기업전자회사에 입사하였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선배들이 어떻게 승진하고 또 명예퇴직하는지를 볼수록 자꾸만 한국생활에 회의가 들어갔다. 어렸을때부터 교수가 꿈이었던 연오는 그리하여 꿈꾸던 유학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공학분야에 유명한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석사과정입학허가를 받자마자 역시나 다른 대기업에 다니던 아내를 한국에 남기고 시카고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화학공학과는 미국에서도 대우가 좋은 분야였다. 석사과정을 잘 마치고 동종분야의 미국회사로 부터 job offer 까지 받았다. 한참 미국경기가 좋은 시절이었다. 졸업후 1년짜리 실습노동허가(OPT)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회사는 연오를 위해 취업비자 (H-1B) 청원서를 내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간 일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취업비자인데 이에는 아주 중요한 제한이 있다. 이 포지션을 일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자체도 4년제 대학학위자 이상을 필요로 해야하고 외국인자체도 적어도 4년제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예컨대 세탁소의 근무자나 스몰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자리를 위해서는 현행 미국이민법상 취업비자를 받을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취업비자의 쿼터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것이다. 추천을 하였고 결국 연오는 선택되지 못했다. OPT 가 끝나가면서 회사는 어쩔수 없이

연오를 해고하였고, 미국에 남고 싶었던 연오는, 아예 마음을 돌려먹어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사과정 입학을 준비하여 다행히 일리노이공대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이민로또를 생각해낸자 누구런가

“세금시즌”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연간 소득세를 보고 하는 매년 2, 3, 4월경은, 모든 회계사들이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회계사 들은 실수없이 그리고 고객에게 가능한 큰 절세결과를 주기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민번호사에게는 사실 별도로 바쁜시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2, 3월경의 “H-1B 시즌”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H-1B란, 미국이민법 규정상에 있는 “취업비자” 부분을 설명하는 조항에 있는 알 파벳입니다. 취업비자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취업하여 최장 6년까지 일할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이민비자입니다. 문제는 이 취업비자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또 정해진 갯수에 한해 허용되는데서 기인합니다.

1년에 미국전체에서 허가되는 비자 총개수가, 석사학위자 이상에게 추가적으로 허락된 2만개를 더하더라도 8만개가 채 안됩니다. 또 이를 미국 연방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에 맞춰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할 비자 신청을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받고 있었는데,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서 신청종료일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신청일 이틀만에 13만여개의 신청이 몰려 접수를 마감하고 사상처음 추첨으로 비자 심사기회를 부여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던 몇년동안은 매달이어 추첨이 없다가 2013년부터 다시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가 4월 1일에 맞춰 서류를 한꺼번에 보내는 복세통을 이루는 H-1B 시즌이라는데 생겨난 것이지요.

도대체 비자 신청에 로또를 생각해 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취업비자가 아니라 복권비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로 느껴지면 “뭘 재미있네” 싶을지 모르지만, 미국에 유학과 어렵사리 학위를 얻어 미국회사에 취직한뒤 비자신청서를 접수하는 십수만명의 유학생 출신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추첨에서 제외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할 처지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1-14 이세오의 주재원 비자 (L-1)



“세오씨는 1.5세라면서? 니 장인장모님은 오랜 미국생활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인데도 너나 세오씨에게 비자가 필요했던 거야? 건우가 오래전 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를 꺼낸다.

미국에 사는 한인은 다시 몇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불리운다. 성인이 되어 미국에 나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편한 세대는 1세 이민자,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게되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때부터 미국생활을 하여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알고 있는 세대를 1.5세로, 그리고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부모님의 자녀들을 2세 이민자라 하는것이다. 어떤 경우는 미국에 들어온 시기가 초등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도 일부러 나누어 1.7세, 1.3세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세오는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때 미국에 왔지만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무렵 이민법상 미성년자인 21세가 넘어 부모님을 따라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마치 유학생처럼 학생비자로 미국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위해 한국에 나갔다가 강연회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이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도 한 10년 기다리면 영주권 나온다던데 그렇게라도 안했던거야?” 건우의 물음에 연오는 쓴웃음지며 답한다.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지. 미리 알았으면 일찌감치 장인어른한테 부탁해서 가족초청해 두는 건데 말이야.”

연오의 아내 이세오는 남편이 미국에 나가 공부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이른바 기러기 아내가 되었다. 남편을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부부중 한사람은 돈을 벌어야 했고, 세오도 여자로서 어렵게 만들어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부부가 그렇게 힘들게 떨어져 살고 있던 차에 기회가 왔다. 세오가 다니던 회사역시 국내 굴지의 회사였는데, 해외지사가 있는 뉴욕지사에 주재원 자리가 난 것이다. 세오의 열정을 높이 산 회사는 가정사정도 고려하여 주재원 파견을 고려하였다.

뉴욕지사는 이민국에 주재원 비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세오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3년짜리 L-1비자를 받아 뉴욕에 입국하였다.

전문가의 한마디

주재원의 체류비자

요즘 이민 변호사들은 속이 많이 탑니다. 취업 이민은 오랫동안 적체이고 예전에는 쉽게 승인해 주던 취업비자 (H-1B)도 서류보완요청이 엄청나게 늘어나 업무 부담이 늘었습니다. 괴롭히는 카테고리중의 하나가 주재원의 비자 신청입니다. 예전에는 주재원 신분에서 들어가는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에 대해서는 종종 까다로웠어도, 단기체류하는 주재원 비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을 해 주던 이민국 경향이 요 몇년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재원이 사용할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비자는 L-1 비자입니다. 이는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을 근무한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수한 능력소지자에게 미주 지사에서 총 7년 내지 5년을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지사에서 미국 이민국에 초청 서류를 보내 승인받은뒤, 서울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L-1 비자의 미국 이민국 심사가 꽤 까다로워 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지사가 갖추어야 하는 매출액과 직원숫자에 대한 최소기준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대기업마저 종종 문제를 삼습니다. 한국본사의 사장님이 미국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해도 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직원채용이나 실제적인 매출발생없이 장기간 월급만 받으면서 지내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요체는 미국에서의 적극적인 비즈니스활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는 주재원비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L-1 비자가 이렇게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 심사하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E-2 비자가 그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최근 각광을 받습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주지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강조하여 그 직원으로서 미국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현금송금뿐만 아니라 본사가 미국에 판매할 장비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매수한 사무실 또는 창고 일수도 있습니다. 투자측면이 강조되는 대신 본사에서 근무경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현지채용시에 유용합니다.

미국이민국은 L-1에 비하면 E-2 심사에 관대한 편이니 만약 미국에 B-1 같은 신분으로 들어와 E-2 로 변경한 뒤 당분간 출국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큰 실익이 있습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L-1과 달리 총체류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비록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더라도 만약 해외출장을 나간다면 서울 미국대사관에 미리 심사를 위한 패키지를 보내야 하고 대사관은 약 1달 후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비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E-2신분으로 들어 온다면 L-1A에게 허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를 못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나,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의 간부급이상 경력이 있었다면 비자형태가 E-2 였더라도 마찬가지로 1순위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재원은 본사와 미국과의 무역비중이 회사전체 무역액의 50퍼센트가 넘는 경우라면 E-1 무역인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과 시기가 잘 맞는다면 H-1B취업비자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5 이세오의 주재원 영주권 (EB1, 취업이민1순위)



연오와 세오는 미국생활이 즐거웠다. 매주는 아니었지만 주말 부부처럼 둘은 일리노이와 뉴욕을 오가며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둘다 대 기업생활이 보람도 있었지만, 미국의 여유있는 환경이 갈수록 마음에 들었다. 둘은 영주권을 취득하자는데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영주권을 얻을 것인가.

세오는 뉴욕의 주재원들 모임을 통해 주재원은 비교적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른바 취업이민 1순위의 한종류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3개월 걸릴거라 말했다. 그러나 의외로 서류보완 요청을 받았다. 그러곤 서류 준비중에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한국본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지사는 자연히 문을 닫았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되었고, 서프사인 회사가 없어진 영주권신청은 결국 거절되었다.

미국지사도 그리고 돌아갈 한국지사도 없어진 세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연오가 박사과정중인 일리노이로 와야했다. 다행히 학생비자의 배우자 비자(F-2)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은 거절되지 않았다. 길좌우로 콩밭과 옥수수밭이 지평선까지 펼쳐진 일리노이의 대평원으로 지는 석양을 매일보며 연오와 세오는 더욱 간절히 영주권을 받고 싶었다.

전문가의 한마디

노벨상 수상자라구요: 취업이민 1순위

1순위 취업이민은 연간 14만개 정도 배정되어 있는 전체 취업이민중 28.6%, 약 4만개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취업이민의 전제가 되는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L/C)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민신청서류 (I-140) 와 영주권신청 (I-485)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 L/C 절차에만 적어도 1년이 걸리는데, 따라서 이 기간을 절약하게 되어 수개월에서 늦어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얻게 되니 정말 속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매기기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이 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우 높은 기준이 따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다시 나누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근로자, 둘째는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그리고 셋째는 다국적기업의 임원 (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에 대한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소지자 경우를 흔히 노벨상 수상자의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전세계적으로 확인받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이민규정은 뛰어난 저널리스트에게 부여하는 풀리처상과 함께 이 하나의 증거 만으로도 특출한 능력을 바로 인정하여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노벨상 정도가 아니더라도 10 가지의 예시된 다양한 증거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거를 들어, 신청자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미 저명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분야는 예컨대, 그분야의 최고에 이른 사람에게 수여하는 수상경력, 서적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출판 실적, 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실적, 관련분야의 최고권위기관 멤버쉽, 또는 해당업적으로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증거등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의 구체적인 추천서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의 능력으로 인해 미국에 큰 기여가 있을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두번째,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에 대한 영주권은 대학교수에 대해 약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이 역시 국제적으로 그 연구실적이 크게 인정되어 미국 대학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등의 교육연구기관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상두가지에 비해 마지막 다국적 기업의 임원의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중 1년 이상을 한국본사에서 관리자급이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하는 미국지사는 설립된지 적어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L-1A 또는 E-2 등의 주재원 비자로 입국한 대형회사의 해외지사주재원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현저히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에는 결국 미국정부가 해외의 대형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지사를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자국경제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경제 마인드가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세번째 길에 대해서도 이민국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사 및 지사의 규모와 사업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관리하는 파견 및 현직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종종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대기업 주재원들도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한마디 지난호 기사보기

지난호 (2015년) 기사는 웹사이트 voiceofnm.kumcabq.com 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3/4월호: 이민 오딧세이, 무 비자시대와 이민 트렌드, 비자와 신분

5/6월호: 이민자를 위한 알파벳 스포, 비자의 종류, 조기유학과 학생비자, 학생비자와 OPT

7/8월호: E-2비자와 투자금, E-2 투자자의 직원비자

9/10월호: 순서 매기기 메카니즘, 취업 이민 스폰서의 자격

11/12 월호: 이민국의 소속, 음주운전과 영주권

앙리 마티스의 생애와 작품활동

앙리 마티스의 생애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그는 1869년 프랑스 르카토캉브레지에서 태어나 경계를 짓는대기보다 연상시키는 듯한 힘차게 그어진 선, 색채 형태 무늬의 대담한 사용, 유려한 움직임, 특유의 색종이 오리기 등으로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운 프랑스에서 배출한 위대한 화가 중 한명이었으며 1954년 프랑스 니스에서 그 생을 마감하였다.



프랑스 북부 시골에서 태어난 앙리 마티스는 열아홉 살이 되어서야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파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그는 회화, 조각, '종이 오리기'(cutouts)를 포함한 그래픽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다. 침대 후반에 어느

변호사의 조수로 일했던 마티스는 드로잉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맹장염 수술을 받은 그는 오랜 회복기 동안 그림에 대한 열정에 눈을 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891년 마티스는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그는 쥘리앙 아카데미에서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수업을 듣고,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상징주의 화가인 귀스타브 모로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색채의 마술사 앙리마티스

많은 수의 정물화와 풍경화들을 포함한 그의 초기 작품들은 어두운 색조를 띠었다. 그러나 브르타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후, 그의 색조는 변화를 보였다. 마티스는 활력 없는 무생물들보다는 생생한 컬러의 천들로 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재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연광의 색조가 가미된, 활기를 띤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은 마티스는 다양한 회화 양식과 빛의 기법들을 실험하기 시작했다.그런 그에게 '야수파'라는 별명을 붙여준 그림이었다. 그 그림은 바로 '모자를 쓴 여인'이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기존 인물표현 방식의 틀을 뒤집었으며 색채에 대한 파격을 보여주었다.

1905년 마티스는 이 초상화를 파리 살롱 도톤 전람회에 출품했다. 초상화의 모델은 마티스의 부인인데, 그녀는 크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사치스런 드레스를 입었으며, 한 손에는 부채를 든 채 안락의자에

심유진 성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앉아있다. 그런데 인물의 표현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파격적이다. 커다란 모자는 물감을 칠했다기보다 물감을 덕지덕지 붙인 꼴이고, 얼굴도 살색 대신 녹색, 연보라색, 파란색을 칠했으며, 목에는 빨강과 주황을 마치 낙서하듯 색칠했다. 모자 밑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도 한쪽은 빨강, 다른 한쪽은 녹색인걸 볼수있다. 색색의 원색을 화면에 거칠게 문질러서 완성한 이 초상화는 이전까지의 초상화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마티스의 부인마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니, 작품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부인을 아름답게 그리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을 만도 하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부인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부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묘사가 아닌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색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감성을 표현하는 색채의 사용보다 사실적이고 정밀한 묘사를 중요시하던 당대 미술계에 마티스는 "가장 아름다운 파랑, 노랑, 빨강 등 인간 감각의 저변을 뒤흔들 수 있는 색깔을 사용해야 한다"며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이로 인해 후대에 태양을 품은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로 불리웠다.



〈모자를 쓴 여인〉

앙리 마티스 와 함께한 화가들

그의 예술인생에서 그와 함께 활동했거나 그에게 영감을 준 화가들도 많은데 그는 에두아르 마네와 폴 세잔, 조르주 피에르 쇠라, 폴 시냐크의 작품을 오랫동안 경외해 왔으며 실제로 그는 1899년에 세잔의 걸작 〈목욕하는 사람들〉(1890~1892 경)을 구입하기도 했었다. 1905년에 그는 앙드레 드랭을 알게되면서 둘은 친구가되어 프랑스 남부를 함께 여행하며 그곳의 색채와 빛을 표현하는법을 연구하며 공동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다. 1907년에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는 친구가

<18페이지로 계속>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교회 앞에 RV Park에 있는 Khan이 건넨 인사말입니다. Khan의 직책이 주인인지 관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여년이 넘게 세워져 있던 교회 간판을 교회 옆에 새로 들어선 주민 위원회에서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이 간판은 Edith 길에서 볼 수 있어서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쉽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세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남의 땅에다 세워놓았던 것이지요.

이 교회 간판을 옮긴다면 가장 적절한 장소가 길 건너 RV Park 자리였습니다. 고민 끝에 RV Park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Khan의 차량인 듯한 검은 색 벤츠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량 앞 번호판에는 “알라”라는 영문과 차 안에 백미러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글귀가 적힌 것이 매달려 있었지요. 금세 이 RV Park의 주인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모슬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대화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기독교 목사가 모슬렘에게 부탁하는 상황을 혼자 상상하면서 들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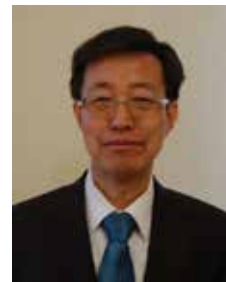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들어가서 Khan에게 바로 앞의 교회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먼저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교회 간판 때문에 왔다고 상황을 말하고 RV Park 안에다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자 Khan이 대뜸 따라오라고 하더니 자신의 검은색 벤츠를 타라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차를 탔더니 RV Park 안에서 교회 간판에 있는 가장 가까운 Edith 길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다가 간판을 세우고 싶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Balloon View RV Park 간판 바로 옆에다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대답은 “거기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현 듯 드는 생각이 그래도 사용료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FREE!”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간판은 RV Park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세워진 후 몇 달이 지나 2015년 성탄절기가 되었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제 선물을 들고 모슬렘인 Khan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서자 예전처럼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Khan이란 사람을 통해서 묘한 파도함을 경험했습니다. 웬지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 간에서도, 한인들 간에서도 이런 파도함이 그리워집니다. 새해에는 좀 더 따뜻한 한인, 크리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12월 24일 아침. “White Christmas”가 시작되려는 듯 차 앞 유리에 하얀 눈이 몇 알 부딪히더니 이내 굴러내려 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추웠던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이 추위로 여러 학교 건물에 화재 방지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물난리가 난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본당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이때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새벽부터 와서 천정으로 솟구치는 물을 틀어막기 위해 물벼락을 맞아가면서 애를 썼지요. 또한 교회 안에 차있는 물을 퍼내느라고 반나절이나 수고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추운 겨울에 물난리가 난 교회에 와서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컴컴한 밤이 되면 경찰차가 교회 건너편에 정차하고 주변을 살피곤 했습니다. 교회 주변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은 교회 알람이 문제가 생겨서 자정쯤에 경찰이 동원된 적도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항상 지역 주민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지요.

소방서와 경찰서에 한국 배 상자와 선물꾸러미를 건네주면서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문에 소방대원들은 몰려 나와서 오히려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해달라고 했지요. 경찰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들이더니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감사해야지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새해에는 누구든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



〈교회 간판을 세우는 남선교회 회원들 2015.10.2〉

탄자니아 이성구 선교사 초청 예배



오영 권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저희들의 창조자 가 되시며 제반사의 주관자 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마지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모두가 예배를 사랑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은총 속에 사는것을 더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여길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늘 성전에 찾아 오지만 주님앞에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지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저희들 지금 이시간에도 주님앞에 보여 드릴 것은
죄지는 모습 밖에 없습니다. 크신그를 배풀어 주셔서 용서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자 온교우들이
합심하여 배우고 멀썩만 쫓아 실행하며 살수있는 한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모두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 마다 내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워놓는 신자의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일들을 능히해낼수있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도 이웃을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곳에 공핍한자의 그릇을
채워주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 질수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시고 새해 첫 주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 하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이름없이 빛 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에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 하오며 저희의 에배를 기뻐받으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메! ■

아메! ■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 탄자니아 선교사인 이성구 목사 내외를 초청하여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계선교의 사명과 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셨다. 설교에 이어서 이미라 사모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4년동안의 선교사역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사진:이성구 목사와 이미라 사모〉

이성구 목사는
1980년경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초창기 교인의
한사람이었고 성가대
첫번 지휘자이기도
하다. 뉴멕시코대학에서
화학공학 석사를
받았고 오하이오주로
옮겨 아르론 대학에서
고분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직장생활을 하던중 하나님으로 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로 진학했으며 그후 뉴욕성결교회에서 안수받고 2011년 미주 성결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파송으로 탄자니아로 파송되었다. 탄자니아에서 4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자녀들과 생활하는 중에 계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기간중에는 탄자니아 연합대학(UAUT)을 여러 사람과 함께 설립해 교수겸 공과대학 학장으로 일했다.



〈사진:여선교회 회장 황경희 집사가 선교비를 전달〉

이 목사 내외는
2016년 6월이면
다시 탄자니아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현재 사역지에서
더 깊이 내륙으로
들어간 '싱기다'
라는 곳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부터 시작하여 대학사역으로 발전시켜 지도자를 길러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에 60에이커의 부지를 허락 받았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 지도자 재교육 시설과 보건소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미국, 한국 방문을 통해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으며 교회, 센터 건축설계사, 주일학교 교사 등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다.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고향과 같은 앨버커키에 머무는 동안 기쁨과 감동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었다. 이 기간중 뉴멕시코 한인교역자협의회의 목회자 여러분과도 코리언 바비큐(고진석 성도)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신경일 목사 내외, 이석중 목사 내외, 현용규 목사 내외, 김기천 목사 내외, 김의석 목사 등이 참석했다. 로스 알라모스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곳에 계신 노강국 목사님과의 만나 선교예기를 나누었다. ■

첫 사랑의 하나님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어찌 그리도 두렵던지 “과연 내가 남들과 똑같이 ‘삶’이라는 이름의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되묻고는 자신할 수 없어서 홀로 있을 적마다 심하게 마음을 앓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처럼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는 격랑이 넘실거리는 험한 강물을 이겨낼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에 빠져 초췌한 얼굴을 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의외로 남들은 입을 모아 심심하다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겁나지 않고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 젊음의 고집이 나에겐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마주하게 된 세상은 어디에도 길이 없었고 반대로 어디라도 다 길이 될 수 있어서 나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나의 첫 세상살이었지요. 오늘도 모르고 내일 또한 모르고 살아가던 당시의 삶,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는 근처도 가지 못했던 당시의 인생이 나의 마지막이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요 슬픔이었겠습니까.

저는 너무 조용하고 말도 별로 없는 사람으로 특별히 자랑할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묵을 즐기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랑해야 할 이야기기 있기에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 사랑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만나고도 싶고, 너무 그림기도 하고, 어느 때나 생각나는 하나님. 인자하시며 항상 사랑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만 하면 지난날의 잘못들을 모두 용서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못해도,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님이 사십이 넘어서 낳으신 막내딸입니다. 자라오면서 “애야, 사람은 첫 사랑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 봄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병원에 누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우주선 모양 같은 것이 병원 마당에 내렸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에게 하늘에서 내린 저것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 병원 마당에 내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는 흰 옷만을 입은 네 사람이 내렸습니다. 특히 한분은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큰 분이 병원 안을 들여다 보더니 나머지 세 사람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와 제가 누워 있는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나의 몸을 잡고 걸으라.”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저의 입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들이마신 그분의 숨 때문인지 저는 헛기침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최미나 성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고, 너무도 신기한 꿈이라 깨어나서도 한참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을 꾸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항상 그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이 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운동 삼아 조금이라도 걷고 나면 너무 아파서 삼사일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2마일 3마일을 매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몇 개월 전에 비하면 거의 고통이 없는 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이런 체험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때마다 귀 기울여 듣는 목사님 설교와 Praxis Bible Study 시간에 배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시작한 이 Praxis Bible Study는 바로 저 같은 초신자에게 너무도 필요한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또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길이라면 그냥 감사하며 살렵니다. 초신자인 저를 특히 속회 모임에서 사랑해주시고 돌보아 주신 속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하찮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영원토록 마음속 깊이 사랑하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환희에 찬 2016년을 맞이하면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

수필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 글은 고향의봄 기념사업회에서 최순애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다시부르는 오빠생각> 이란 책에 실렸던 글입니다.(편집부)



이경화 장로
아버지키연합감리교회

나의 어머니(최순애)께서는 12살이 되던 해인 1925년 동요 <오빠생각>을 <어린이>지에 발표 했고 아버지(이원수)께서는 15살이 되던해인 1926년 동요 <고향의 봄>을 <어린이>지에 발표함으로 해서 두분이 서로 알게 되어 10여 년간 편지로 사귀다가 결혼하시게 된 만큼 문학은 두분께서 제일 좋아하신 것이었다. 두분께서 문학 다음으로 좋아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음악이었다. 두 분께서는 음악을 특별히 공부하신 것은 아니지만 노래 듣길 좋아하셨고,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노래 부르는 일도 즐기셨다.

어머니께서는 수원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으니 찬송가를 자주 불렀을 터이고 어머니 바로 밑의 동생, 나의 이모님 (최영애)은 이화 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음을 미루어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신 것 같다. 어머니께서 문학과 음악을 좋아 하신 것은 어머니의 오빠(최영주) 되시는 분, 내게는 외삼촌이 되시는 분의 영향도 컸다고 믿어진다. 외삼촌께서는 일본 유학을 다녀 오신후 어린이 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오른팔 역할을 하시면서 아동문학가로서 어린이 잡지의 편집을 맡아 보셨던 분이다. 어머니께서 동요 <오빠생각>을 지어서 투고할 때 외삼촌이 미리 동요를 읽어보고는 “비단댕기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쓰셨던 글을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고쳐주었다는 얘기가 전해 오고 있다.

2차대전 말경 우리는 경상남도 함안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금융조합에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세 아이를 키우느라고 바쁘셨을때, 내가 아마 여섯살쯤 되었을 때로 기억한다.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우리집 재산목록 1호쯤 되는 애장품이 있었는데, 축음기라고도 하는 유성기가 있었다. 아마도 외삼촌께서 어머니, 아버지 결혼 선물로 사 주신 것이 아니었나 짐작 되는데 이 유성기에 그려져 있는 인상적인 로고가 기억에 남아 있다. 옛날 에디슨이 발명해서 나온 나팔이 달린 축음기 앞에 앉아 소리를 듣고 있는 ‘니퍼’란 이름의 개가 그려져 있는 일본 빅터 레코드의 로고가 기억난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이 유성기를 무척 애끼시고 자주 음악을 들으셨던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유성기 앞에 둘러 앉아서 새로 나온 음반을 올려 놓고 음악을 들을때는 동생과 나까지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었다. 유성기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태엽을 감아 주어야 했다. 그일은 네 살된 동생의 몫이었다. 나는 바늘을 끼는 역할을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 바늘은 특수한 연한 쇠로 만들어 레코드 판의 마모를 최소화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바늘이 쉽게 마모되어서 레코드 한 장 듣고 나서는 또 바늘을 갈아야 했다. 바늘을 요요같이 생긴 소리막 밑에 끼어 조이고 나서는 레코드 판 위에 바늘을 올려 놓아야 되는데, 이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니 이 일은 아버지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유성기 앞에 앉아 음악에 따라 노래 부르는 손님이었다.

많은 음반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대략 열댓 장 정도의 레코드 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두분이 함께 자주 들으셨던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브람스의

자장가등의 외국 노래와 박태준 작곡의 <사우(동무생각)>과 <오빠생각>, 흥난과 작곡의 <봉선화>와 <고향의 봄>등의 한국노래들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태준 작곡의 <오빠생각>이 음반으로 나온것이 빅터 레코드로는 1931년(Victor KJ1306)이었고 리갈 레코드에서 나온것은 1934년(Regal 165B)이었으며 흥난과 작곡의 고향의 봄 역시 1931년 콜롬비아 음반(Columbia40273)으로 나왔다는 기록을 보았다.

1945년 해방된 해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경기 공업학교에서 2년동안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박문 출판사로 옮겨 근무하셨다. 해방후 혼돈된 사회 속에서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출판사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우리가 안암동으로 이사가서 살때에 우리 남매는 동생이 더 늘어서 6남매가 되었다. 출판사 월급이 제때에 나오지 않아서 어머니께서는 쌀 걱정을 자주 하시고 쌀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쌀을 사오셔서 끼니를 이어갔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께서는 부족한 식품 조달에 보탬이 되게 하시려고 집 주변에 사람 다닐만한 길만 남겨 놓고 모든 공간을 밭으로 만들어서 옥수수를 심으셨다. 옥수수의 밀림을 만드셨다. 그런데 6.25가 터졌다. 그나마 작은 월급도 없어지고 당장 먹을거리를 얻을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배고픔의 고통속에서 온가족이 거리에 나가 장사를 하기 시작 했다. 제일 먼저 한것이 서울 근교의 과수원에 가서 배를 사서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나와 내 동생은 천으로 만든 배낭에 담아 짊어지고 날라서 신철동 안암동 삼거리 대광학교 담 밑에 자리 잡고 배를 팔았다. 팔아서 남는 수입으로 밀가루든 감자든 먹을수 있는것을 마련해서 끼니를 이어 나갔다. 그때 옥수수가 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러나 그 많은 옥수수도 여덟식구의 매일매일 식탁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이때 희생재물이 된것이 가보로 모셔 온 빅터 유성기였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양되겠다. 미안하지만 이것이라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겠다” 하시면서 축음기를 머리에 이고 나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으로 갔다. 유성기를 팔아 보려고 가게마다 들어가서 “유성기 사세요”

하고 애걸을 했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가게가 없었다. 굶어죽지 않으면 다행인 전쟁중에 누가 옛날 유성기를 살 것인지.. 내 생각에도 억지 중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쌀 가게 주인이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는지 쌀 한되 줄테니 팔라고 제안을 해서 쌀 한되와 거래가 이루어 졌다. 겨우 쌀 한되!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쌀을 받아 들고 와서 그날 저녁은 오랫동안 쌀밥을 먹은 기억이 난다. 에디슨 축음기 나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던 빅터 유성기의 니퍼 강아지는 이렇게 팔려갔다.

서울이 유엔군에 의해서 되찾고 얼마 안되어 다시 중공군의 손에 들어가고 또 국군이 서울 탈환을 하는 이 한국 전쟁 중 두 동생을 잃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생사를 몰랐던 아버지와 극적 만남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52년,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그해 우리 가족은 대구로 피난처를 옮겨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는 어린이 잡지 <소년세계>를 편집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이 생겨서 기아의 선상에서 일단 벗어나긴 했으나, 어머니께서는 두 아이를 잃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 받으셨다. 이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 나가시는 듯했다. 대명동 영산못 옆에 천막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나와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시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대구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나를 데리고 가셨다. 우연히 하모니카를 파는 노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반가운 기색을 하시면서 주인에게 하모니카를 불러 보아도 좋으냐고 묻자 주인은

“침 들어가지 않게 붙어보세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하모니카를 집어 들어 입에 물고는 자신이 작사한 <오빠생각>을 베이스를 넣어가며 신 나게 붙여 재치했다. 하모니카를 부는 어머니를 처음 보는 나도 놀랐고 가게 주인도 보통 솜씨가 아닌 어머니의 하모니카 연주에 놀랐다. 어머니께서는 학창 시절에 하모니카를 잘 붙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줄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른 악기는 못 사 주지만 하모니카 정도야 못 사주겠니? 너도 하모니카나 배워 보렴!”

하면서 하모니카를 사 주셨다. 내 평생의 취미인 하모니카와의 만남은 내가 중학교 3학년때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머니로 부터 하모니카 부는 기초를 배웠고 한 달 뒤에는 그 당시 하모니카 연주자로 대구에서 활약했던 이덕남 선생으로 부터 하모니카 강습을 받게 되었다. 더 후에 서울로 올라온 뒤 최영진 선생이 이끄는 고려하모니카 합주단 단원이 된것, 이 모두가 대구 시장에서 어머니께서 사 주신 하모니카로 시작이 된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소년세계> 출판사도 대구시장에서 가까운곳에 있었고 저녁거리 쌀이 떨어지면 어머니 심부름으로 출판사에 가서 저녁거리에 필요한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자주 갔다. 편집실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직원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전쟁중인 난시에 원고료도 제대로 줄수 없는 상황에서 잡지를 만드시다 보니 많은 기사를 아버지께서 손수 쓰셔야 되었다. 그런 기사중에는 외국 잡지 같은데서 번역해서 옮겨 쓰시는 기사도 많았다. 한번은 옷핀과 면도칼로

오빠생각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빠죽 빠죽 빠죽새
숲에서 울 때
우리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 기럭 기럭기
북에서 오고
꿇들 꿇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1925)



만든 라디오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2차대전때 일본에 잡혀 온 미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일본군 몰래 고안한 면도칼에 옷핀을 접촉시켜서 광석 수신기의 광석을 대신하게 하는 라디오를 만들어 미국 방송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이 라디오 원리를 소개 한 기사였다. 아버지께서 군수품 시장에서 헤드폰 레시버 하나를 사들고 집에 오셔서 나를 보고 그 기사 내용이 맞는지 실험을 해 보라고 하셨다. 안테나줄을 치고 기사에 쓰인대로 만든 결과 대구방송국에서 나오는 KBS전파를 수신할수 있게 되었다. 피난민 집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갖게 된 것이었다. 소리를 좀더 크게 할수 없을까 하고 여기에 취미를 부치기 시작한것이 결국 나중에 대학 진학을 공과대학 전자 공학으로 정하게 되었고 전자공학은 내 평생의 전공이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출판사 일과 글 쓰시는 일에만 전념케 하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다. 어머니께서 밀어주신 내조가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창작 활동은 상당히 위축 되었을지도 모른다. <소년세계> 잡지에 아버지께서 번역 시를 하나 올린게 있었는데 독일 시인 칼 부세의 시였다. 그 당시 같은 내용의 시가 일본어로 번역 된 것을 한국어로 재번역되어 알려진것이 있었으나 아버지께서는 그 번역이 마음에 차지 않으셨는지 자신이 새로 번역해서 잡지에 올렸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때 우리들에게 기존의 번역과 아버지께서 번역한것을 비교해 보이시면서 ‘네 아버지 글이 훨씬 더 좋지 않니?’ 하시는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번역된 시는

앙리 마티스의 생애와 작품활동 <13페이지에서 계속>

되었다. 둘은 자주 함께 어울렸으며 서로의 작품을 교환하기도 했다. 둘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마치 한 쌍처럼 함께 언급되곤 한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20세기 미술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했으며, 또 그들 작품의 요소들을 실험하기도 했지만, 마티스는 항상 자신만의 미술을 추구하며 개성적인 양식을 창조했다. 그의 경력에서 전환점이 된 작품은 <춤> (1909) 과 색종이를 사용하여 완성한 <달팽이>이다.



<춤>



<달팽이>

에필로그

이번호 에는 화가 앙리 마티스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는데, 그의 작품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티스가 현대 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은 어떤것들인지, 그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티스 이야기를 다음 기회에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너머 저 곳 먼 하늘 아래...’ 이렇게 나가는 시였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쓰신 글을 빼놓지 않고 읽고 비평도 하고 격려도 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분 사이에 이따금 다툼이 있었던 것도 기억난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가르켜 이 원수를 만나 이게 무슨 내 팔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럴때 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는 나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지키지 않느냐고 대꾸하셔서 싸움이 폭소로 바뀌어지기도 했다.

문학으로 부부를 맺고 가난속에서도 음악으로 마음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으로 인해 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사랑하며 마음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모니카를 지금도 놓칠 못하고 있다. 약 70개의 노래를 유튜브(YouTube)에 하모니카 노래로 올렸고 교회성가대 지휘를 지금도 하고 있다. <오빠생각>과 <고향의 봄>도 하모니카 이중주로 몇 년전에 올려 놓았는데 그 동안의 방문자 수를 보면 <오빠생각>이 10만명을 넘었고 <고향의 봄>은 4만명이 되어 어머니 노래가 아버지 노래를 앞 질렀다. 나의 유튜브 방문자를 나라별로 분류한 통계를 보면 <고향의 봄>은 외국에 나와있는 교포들이 단연 많이 찾는것을 볼수 있다. 한국방문자가 56%이고 미국,일본,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스웨덴등 23개국에서의 방문이 44%가 되는 반면 <오빠생각>은 한국 방문자가81%이고 외국의 방문자는 19%로 낮은 편이다. 고향을 멀리둔 재외 교포가 <고향의 봄>을 더 많이 찾고 <오빠생각>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 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4312 Coors SW (505) 877-27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2 6631 Paradise Blvd. NW (505) 897-0088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택융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부동산 Realtors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세탁소 Dry Cleaners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Kelly Liquors #1 9411 Coors NE (505) 897-967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한의원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월셋집 House for Rent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의류 Clothes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Kelly Liquors #1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편집후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광야의 소리'를 애독해 주신 독
자 여러분과 좋은 글을 투고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의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사랑과 유대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 교양 및 신앙에 더 중점을 두
는 소식 지로 커갈 수 있도록 교민 여러분께서 좋은
글을 많이 써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편집위원장 이경화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6년 1/2월호

발행일 : 2016. 1. 9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5
Tel: 505-988-4476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H&R
BLOCK**

**NAMI
ROYBAL**

한국성명: 류정남

TAX SPECIALIST 2

8201 Golf Course Rd NW
Ste F-2

Albuquerque, NM 87120

Office: 505.792.0997

Cell: 505.220.9372

Fax: 505.792.7871

nami.roybal@tax.hrblock.com

AVAILABLE
YEAR-ROUND

BY APPOINTMENT

HRBLOCK.COM



세금보고를
해 드립니다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at.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